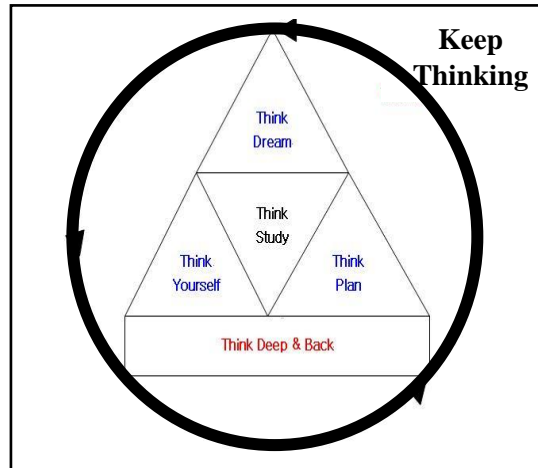


Keep Thinking 개요

CODE 6. Keep Thinking



1. Keep Thinking 구성

‘절대 원칙’ 중 하나인 Keep Thinking CODE에 대해 다룬다. Keep Thinking에는 SYSTEM이 없다. 공부법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SYSTEM은 이미 다른 CODE에서 제시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배운 CODE와 SYSTEM을 이용하여 ‘공부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2. 내용 개괄

6개 CODE 모두 균형적으로 꾸준히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CODE에 집중한다.

Keep Thinking은 공부법 구조도의 CODE부분에 위치하는 ‘절대 원칙’을 담고 있다.

3. Keep Thinking 수강 포인트

Keep Thinking을 수강한 후에는 ‘공부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한 이유로 중요하며, 앞으로 나는 ~~~한 방법으로 공부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명확히 알고 공부한다.

Keep Thinking _ CODE

[Keep Thinking]
CODE #9. Keep Thinking

1. Keep Thinking _ CODE

Keep Thinking은 지금까지 배운 5가지 CODE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기 위한 마무리 CODE이다. 공부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CODE와 SYSTEM을 골고루 균형 있게 그리고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하게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면 10시간을 공부해도 1시간 효율밖에 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공부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공부법을 끊임 없이 상기하고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Keep Thinking에 집중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길 바란다.

[Keep Thinking]
CODE #9. Keep Thinking

『 지능적으로 공부하기를 지속하라 』

- CODE/SYSTEM → Skill
- 질 : 완전학습 + 균형학습
- 양 : Best Plan 진입
- 공부법 체화/실천의 고비 극복

1.1. 질 (Quality)

지능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의 질과 양을 만족시키면서 올바른 공부법을 꾸준히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공부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바로 완전학습과 균형학습이다. 지금까지 배운 공부법은 대한민국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CODE와 CODE를 실제 공부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SYSTEM으로 이루어져 있다. CODE는 절대원칙으로서 당연히 체화해야 한다. 이 때 SYSTEM은 CODE를 완전하게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정장치이다. 따라서 하나의 빈칸도 허용하지 않고 완전하게 공부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래 그래프는 리비히의 최소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양 성분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가 성장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령 질소, 인산, 칼륨, 석회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들어 있어도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성장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공부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Think Deep&Back CODE를 아무리 완벽하게 수행했다 해도 Think Yourself 또는 다른 CODE의 실천이 부족하면 성적은 향상될 수 없다.



Keep Thinking _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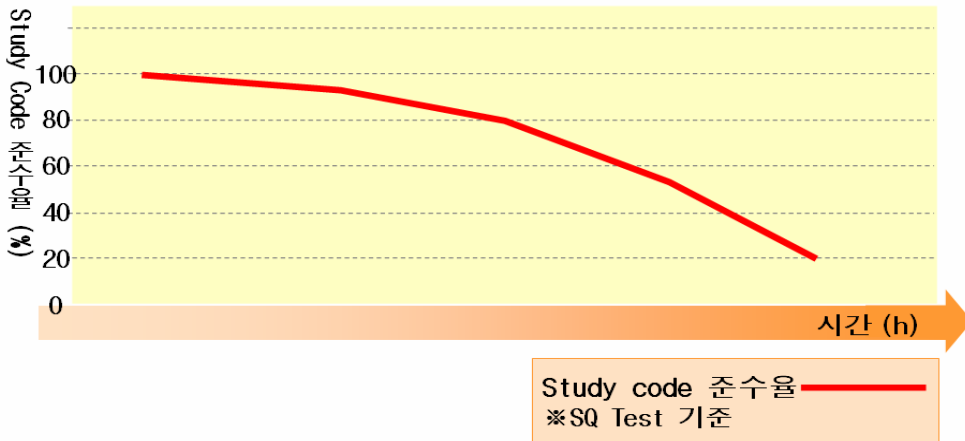
1.2. 양(Quantity)

대학입시는 일정한 시험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의 학습 양을 만족시켜야 한다. 학년별 그리고 수능 전까지 채워야 할 학습량은 Best Plan에 명시되어 있다. 공부할 때는 Best Plan과 나의 공부 스케줄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공부법의 체화

아래 그래프는 스타디코드 공부법의 준수율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공부법 준수율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법 준수율이 점점 낮아지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약 5% 이하의 사람들만이 공부법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바른 방향이든 잘못된 방향이든 수년간 고수해온 자신의 공부법을 뒤엎고 새로운 방법을 체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공부법 체화 역시 퀀텀점프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처음에는 CODE를 잊어버리고, SYSTEM 작성이 귀찮겠지만 꾸준히 3개월만 완전히 그리고 고르게 공부법을 지속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무의식 중에도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학습의 효과는 정체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자연현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에너지 준위에 대한 그래프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투여하는 에너지만큼 에너지 준위가 비례하여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도 에너지 준위는 상승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문다. 그러나 에너지 투입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추가 에너지를 가하면 어느 순간 폭발적인 상승을 보인다.

학습의 효과도 마찬가지이다. 성적이 제자리걸음하는 정체기에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에 집중한다면 어느 순간 폭발적인 성적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 성적 정체기에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이겨내고 꾸준히 노력할 때 상승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